

다원주의 윤리에 대한 동양철학적 접근*

윤 태 양**

주제분류 유가철학, 동양철학, 다원주의

주요어 다원주의, 유가윤리, 이동성, 동양철학, 형식적 원칙

요약문

이 논문은 다원적인, 그리고 더욱 다원적이게 될 한국사회에 대한 동양 철학의 기존 접근들을 검토하고, 다원주의의 동양철학 특히 유가윤리적 보완과 유가윤리의 다원주의적 변화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기존 동양철학(유·불·도)의 접근에 대해 시기에 따라, 그리고 연관 주제에 따라 두 측면에서 검토한다. 검토에 따르면, 특히 유교에서 다원주의의 문제를 다룬 연구의 방향은 크게 두 부류로 합치됨을 확인했다. 하나는 다원주의의 위협 혹은 그 한계를 유교 내에서 해결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서 다원성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조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사회와 개인을 아우르면서 다원적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형식적 원칙과 구체적 지침의 병행을 주장한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3043497)

**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1. 서론

이 논문은 다원적인, 그리고 더욱 다원적이게 될 한국사회에 대한 동양철학의 기존 접근들을 검토하고, 다원주의의 동양철학 특히 유가윤리적 보완과 유가윤리의 다원주의적 변화를 모색한다.

세계의 다원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로부터 촉발된 다원주의는 무엇보다 물리적 이동의 증대에 의해 야기되었다.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던 지난 세기까지의 보편주의에 대한 대항으로, 테일러 등이 제창한 ‘차이의 존중’과 ‘관용’은 다원주의의 핵심적 요소로 부상했다. 현실적인 차이의 경험이 물리적 혹은 비물리적 이동에 의해 야기된다는 것은 곧 그 이동이 더 빨라지고, 멀어지고, 잦아지고, 복잡해져 감에 따라 다원주의가 더욱 강하게 요청되리라는 것을 예상케 한다.

전 지구적 단위의 물리적, 비물리적 이동은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태원이나 안산 등 오래된 외국인거주지역과 명동이나 남대문 같은 관광지에서만 간간히 외국인을 만날 수 있던 시대는 지났다. 그러나 아직 한국사회에 다문화주의가 잘 정착한 것 같지는 않다. 비단 다“문화”만이 문제는 아니다. 매일 화제가 되는 “젠더”, “종교”, “세대”, “난민”, “좌우”, “지역” 갈등은 지금 한국사회에 가득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요구와 인색한 대응을 잘 보여준다.

문병도(2003)의 말처럼, 절대적 보편주의가 역사적으로 보여 온 억압과 폭력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다원주의는 필요하다.¹⁾ 이명곤(2016) 역시 소통과 교감의 ‘공동체적인 인류문화’를 향한 지향이 전체주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정신문화로 변질될 위험을 막기 위해 다원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²⁾ 하지만 다원주의에 대하여 허무주의로의 귀결이나 공공

1) 문병도, 「전통적 유교의 다원성 억압」, 『중국학보』 48, 2003, 559-578쪽.

성의 훼손에 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³⁾ 이에 대해 박구용(2004)은 다원주의에 대한 우려들이 있지만, 다원주의를 거부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그 대안으로 이성(理性)과의 상호 제약적 관계 등을 주장한다.⁴⁾

사실로서 다원성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온건한 상대주의적 태도는 이미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다원주의는 종종 상대주의와 동일시되거나 그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특정한 영역, 예를 들어 종교나 윤리·도덕 같은 영역에서는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⁵⁾ 이론에서는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차이와 갈등이 실천영역에서는 극복 가능할 수 있다는 이상화(2002)의 주장에 대해 최재식(2002)은 이론의 어려움으로부터 도피한 것이 아니냐고 논평했다. 필자는 양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래서 이론적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다원주의와 동양철학의 적절한 보완과 결합이 다음시대의 윤리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희망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다원주의의 핵심은 기존의 서구이론들이 보여 온 지나친 이성의존과 절대적 보편주의에 대한 반발이다. 둘째, 우리를 둘러싼 다원주의의 문제는 그것이 사실일 뿐 아니라 당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실적 문제이며 당장의 실천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당면한 윤리적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셋째, 우리는 한편으로 이러한 서구사상의 세례를 받았지만, 한편으로 아직 전통적 동양철학이라 할 수 있는 유, 불, 도의 영향을 적잖이 받고 있다.⁶⁾ 또한 무엇보다 동양철학의 핵심문제는 사회와 개인의

2) 이명근, 「프랑스 현대철학자들의 사상에 나타나는 톨레랑스 정신」, 『인간연구』 31, 2016, 83-112쪽.
 3) 노양진,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 『범한철학』 34, 2004, 59-82쪽.
 4) 박구용, 「윤리적 다원주의와 도덕적 보편주의 - 제약된 다원주의로서 정치적 자유주의」, 『사회와 철학』 8, 2004, 235-282쪽.
 5) 김선욱, 「다원주의의 논점들과 정치-윤리적 관점」, 『사회와 철학』 6, 2003, 7-38쪽.

윤리와 도덕이었으며 특히 치밀하고 세련되면서도 이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하는 그러한 도덕론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므로 특히 윤리와 도덕의 측면에서 동양철학을 전면적으로 외면하거나 부인하려는 것은 한 쪽 다리를 잘라 절름발이가 되려는 것처럼 무모하다.

필자는 특히 유가 윤리를 중심으로 다원주의에 대응하는 동양철학계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서, 필자가 하고픈 주장이 여러 선행 연구에 부분적으로 이미 산재해 있던 것을 확인했다. 그것은 동양철학, 특히 유가 윤리는 다원적 시대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걸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원주의의 윤리 이론적 빈 부분들을 형식적 원칙과 구체적 지침의 병행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유학의 본래 취지와도 일치하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 추려낸 40편의 국내학술지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떻게 다원주의에 대응해 왔는지를 검토한다. 기존 동양철학의 접근에 대한 검토는 시기에 따라, 그리고 연관 주제에 따라 두 측면에서 수행한다. 이후 그 공통적 입장이나 태도를 정리한 후, 다원적 사회에서 동양철학, 특히 유가윤리의 보완과 그것의 다원주의적 변화를 검토한다.

2. 동양철학에서의 접근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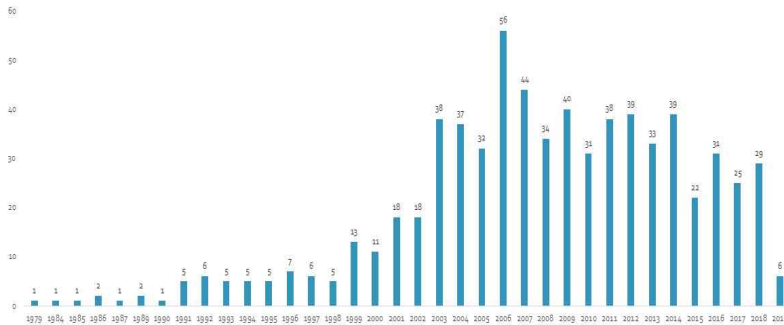
1) 시기별 검토

그렇다면 한국의 동양철학은 한국의 다원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왔으며,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가. ‘다원주의’로 검색되는 연구 성과들은

6) 본고에서는 유, 불, 도를 지칭하면서, 유교·유가·유학·유가철학, 도교·도가·도가철학, 불교·불가·불가철학 등의 용어를 혼용한다. 이는 각 논문들의 서로 표현에도 기인하지만, 예컨대 유교와 유가의 이론적 구분보다도 유로 통칭될 수 있는 공통의 범주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게는 2,000여 건에 달하지만, 동양철학계에서의 성과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들은 39건 정도이다.⁷⁾ 학위논문의 경우 석사논문이 200여 건, 박사논문이 50여 건이 있지만, 동양철학과 관련된 것으로는 불교를 주제로 한 이명권(1994), 김경섭(2003), 박미경(2005), 김은영(2009)과 유영모를 주제로 한 강연만(2000), 통일교를 주제로 한 최훈문(2001) 등 6편에 그치며, 박사학위논문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⁸⁾ 단행본은 불교학연구회(2002)가 펴낸 『불교와 다원주의』를 제외하면, 동양철학적으로 다원주의를 다루거나 다원주의적으로 동양철학을 다룬 단행본은 없다. 다만 사회와 철학 연구회(2003)가 펴낸 『한국 사회와

- 7) 국내학술지에 실린 연구논문들 중 ‘다원주의’를 제목이나 주제어에 넣은 것은 대략 700여 건이 생산되었다. 출간수를 연도별로 보자면 1999년을 기점으로 연간 10편 이상으로 늘어나다 2006년에 무려 56편이 출간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매년 적게는 20여 건, 많게는 40여 건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다원주의’에 대한 논의가 빈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8) 이명권, 『印度思想의 解脫論과 基督教思想의 自由論 : 종교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본 이해』, 1994, 동국대학교 대학원; 강연만, 『류영모의 종교사상연구 : 종교다원주의를 중심으로』, 2000, 협성대학교 대학원; 최훈문, 『문선명 선생의 종교간 대화의 방법론』, 2001, 선문대학교 대학원; 김경섭, 『元曉의 和諍思想 研究 : 宗校多元主義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2003,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미경, 『西山休靜의 多元主義의 宗教觀 研究 : 「三家龜鑑」을 中心으로』, 2005, 동국대학교 대학원; 김은영, 『元曉 「涅槃宗要」의 和會思想 研究 : 宗教多元主義의 含意와 관련하여』, 2009, 동국대학교 대학원.

다원주의』, 한국철학회(2003)가 펴낸 『다원주의, 축복인가 재앙인가』, 전남대학교 BK21+ 팀(2018)이 펴낸 『다원주의의 철학적 관점』, 데이비드 왕(김성동 옮김, 2006)의 『다원론적 상대주의』 등에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처음으로 출간된 논문은 1986년 한국불교학회에서 출간된 박선영의 「불교적 교육과 종교적 다원주의」이다. 이후 1992년에서 2000년까지 1990년대에는 7건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연관된 주제로 나누자면 유교에서 3건, 불교에서 4건, 원불교에서 1건이 출간되었다. 이때 발간된 불교 논문의 다수가 종교다원주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번호	연도	제목	저자	중심영역
1	1986	불교적 교육과 종교적 다원주의	박선영	불교
2	1992	多元主義(Pluralism)·코포라티즘(Coporatism)·儒敎主義(Confucianism)	김정현	유교
3	1992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기독교와 원불교의 태도 비교	류명원	원불교
4	1995	유교(儒敎)와 종교다원주의(宗敎多元主義)	김성기	유교
5	1995	통일적 종교다원주의에서의 공동본질문제에 대한 중관학적(中觀學的) 해명	김용표	불교
6	1996	삼동윤리(三同倫理)에 본 종교다원주의	백준흠	불교
7	1997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의 선사상과 실천적 다원주의	김승철	불교
8	2000	유교민주주의에 있어서 유교, 자유주의그리고가치 다원주의	김비환	유교

2019년 현재까지 동양철학계의 다원주의 논문 중 절반가량인 21편이 2001년부터 2009년 사이에 출간되었다. 이 시기 역시 불교가 10편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교가 5편, 한국현대사상이 2편, 도

교, 한국전통사상, 중국현대사상이 각 1편, 유·불·도를 아울러 본 것이 1편이다. 2편이 출간된 한국현대사상은 유·영·모에 관한 것 1편과 함석헌에 관한 것 1편으로 모두 씨울사상과 관련된 것으로 묶을 수 있다.

2000년대 동양철학계에서 다원주의 관련 논문이 급증했는데, 이는 ‘다원주의’에 관련된 논문 전반의 추세와도 일치한다. 또한 불교학연구회(2002)와 사회와 철학회(2003), 한국철학회(2003) 등의 단행본도 이 시기에 많이 출간되었다. 이들 단행본의 형태는 발간논문을 모아 편집한 것으로, 단독저자의 출판물보다 준비시기가 적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양철학계에서 다원주의에 대한 논의가 2000년대 들어 큰 활기를 띠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크게 부당하지 않을 것이다.

번호	연도	제목	저자	중심영역
9	2001	천태불교의 다원주의적 논리 : 천태불당(天台敎判)을 중심으로	이영자	불교
10	2002	회당사상(梅堂思想)과 종교(宗敎) 다원주의(多元主義)	장익	불교
11	2002	불교와 다원주의	木村清孝	불교
12	2002	유교와 도교, 그리고 불교의 다원주의 가능성	윤영혜	유·불·도
13	2003	일원과 다원[‘제’와 ‘중’] - 장자의 다원론 사상과 그 의의	팽봉	도교
14	2003	전통적 유교와 다원성의 억압	문병도	유교
15	2003	불교 안에서의 다원주의- 본질주의와 허무주의의 극복	조윤희	불교
16	2004	불교의 계율에 대한 새로운 이해 - 불교 윤리학을 위한 몇 가지 전제들	조성택	불교
17	2006	동아시아 불교의 두 얼굴 - 다원주의와 본질주의의 공존	조윤희	불교

번호	연도	제목	저자	중심영역
18	2006	유교는 화해적인가, 비타협적인가	정재현	유교
19	2007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인(仁) 개념	정용환	유교
20	2007	한국 신종교의 근본주의(Fundamentalism)와 회통적 다원주의(Synthetic Pluralism)	박광수	불교
21	2008	다석(多夕)의 종교다원주의와 파니카의 우주신 이론	김진	한국현대
22	2008	글로벌 시대 효학의 방향과 역할 - 글로벌 윤리로서의 효의 현대화	서은숙	유교
23	2008	중국 불교의 방편사상과 다원주의 - 천태지의의 방편사상을 통해	김정희	불교
24	2009	공자 도덕 이론의 실용주의적 읽기	서영이	유교
25	2009	종교 다원주의 시대의 정토신앙과 그리스도교 - 친란(親鸞)과 Martin Luther의 절대 타력신앙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용표	불교
26	2009	주검지(朱謙之) 문화철학의 현대문명 담론적 현재성 - 서구 패권적 문명패러다임에 대한 동양의 대안담론으로서의 가능성-	전홍석	중국현대
27	2009	홍익인간(弘益人間) 사상의 다문화주의적 함의	최문형	한국전통
28	2010	원효의 화회(和會) 해석학을 통해 본 종교 다원주의 - 종교성의 공동 기반과 심층적 대화원리	김용표	불교
29	2010	함석헌과 종교다원주의- 탈향(脫鄕)과 귀향(歸鄕)의 구도자	신재식	한국현대

마지막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10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 기간에 출간된 논문들에서 괄목할 만한 것은 유교 논문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유교 논문은 6건이 출간된 반면 불교와 도교 논문은 1건이 출간되어 급감했다. 또한 한국현대사상 분야에서 2건의 논문이 출간되었

는데, 모두 대순사상에 대한 것으로, 2000년대 한국현대사상 분야에서 출간된 2건의 논문이 모두 씨울사상에 관련된 것과 대조된다.

번호	연도	제목	저자	중심영역
30	2012	타자 대우의 두 원칙: 관용과 서(恕)	이선열	유교
31	2012	從儒敎觀點論宗教多元主義	김성기	유교
32	2013	유가의 범도덕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황갑연	유교
33	2014	HK 학술 동향: 유교 민주주의와 가치 다원주의	김성문	유교
34	2014	대순사상에 있어서 종교다원주의 패러다임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김승철	한국현대
35	2014	종교학적 관점에서 본 대순사상의 성속(聖俗)체계와 종교 다원주의	박광수	한국현대
36	2016	사사무애(事事無礙)에 관한 철학적 고찰과 현대적 함의: 징관의 사법계(四法界)설을 중심으로	송남주	불교
37	2017	장자(莊子) 시비론(是非論)의 다원주의적 고찰	이경환	도교
38	2018	오규 소라이의 다원주의적 도덕 철학	박창식	유교
39	2018	동아시아적 시각으로 보는 유학의 현대적 계승의 의미	박은희	유교

2) 중심연관주제별 검토

이들을 연관주제에 따라 분류하면 가장 많이 출간된 연관주제는 유교와 불교로 각 14편이 출간되었다. 다음으로 도교, 원불교, 대순, 씨울 등이 각 2편씩이며, 중국현대철학자인 주경지와 한국고대사상인 홍익인간과 관련된 논문, 그리고 불교를 중심으로 했지만 유, 불, 도를 다 아우른 논문이 1편 있다.

불교, 원불교 등에서 다뤄진 내용의 대부분은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종교적 대응이었다. 김용표(1995)와 백준흠(1996), 김승철(1997) 등은 모두

기독교의 신중심적 다원주의에 대하여 각각 불교, 원불교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⁹⁾ 예컨대 김용표는 종교다원론자들의 공통된 주장으로 신적 실재를 중심에 둔 근본적 동일성을 들면서, 이와 달리 중관불교의 진리와 방법이 이원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를 넘어선다고 주장한다.

이런 흐름은 20여년 뒤에 출간된, 대순사상을 다룬 두 편의 논문, 김승철(2014)과 박광수(2014)에서도 발견된다. 두 논문 모두 대순사상에 다원주의가 내재해 있었음을 역설한다. 김승철은 한국 신종교의 공통된 특징으로 회통적 다원주의를 지적한 박광수(2010)의 논의를 이어 대순사상에서 포괄적 다원주의를 찾고자 한다.¹⁰⁾ 김승철은 이런 것이 대순사상뿐 아니라 아시아의 신종교 일반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 회통성을 대순사상의 다원주의적 특징으로 꼽는 것은 박광수(2014)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반해 기요타카 키무라(2002), 장익(2002), 조운호(2003, 2006), 송남주(2016) 등에 오면 기독교에 대한 대항의식보다는 다원주의의 논리가 불교 교리 혹은 정신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밝히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들은 석가가 인도의 본래 사상적 조류였던 극단적 절대주의와 극단적 상대주의 양쪽 모두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했던 것에 주목한다. 곧 초기 불교의 근본적 교리에 입각하여, 불교에 대한 보편주의적, 일원주의적, 절대주의적, 허무주의적 해석을 극복하려 시도한다. 특히 기요타카는 다원주의와 일원주의를 오갔던 불교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면서 설일체유부설과 유식학파의 전개를 비교한다.

9) 이 장에서 본문에서 설명한 논문들은, 상기한 표에 없는 경우가 아니면 따로 주석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

10) 김승철이 인용한 박광수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박광수, 「한국 신종교의 근본주의(Fundamentalism)와 회통적 다원주의(Synthetic Pluralism)」, 한국종교연구 9, 2007, 1-30쪽.

조운호와 송남주는 이와 달리 불교의 본질주의적 변질을 논구한다. 조운호(2003)는 본질주의에 대한 불교의 비판을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으로 나누어 설명한 뒤, 또한 허무주의나 극단적 상대주의로의 귀결 우려를 막기 위해 제약된 다원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른 논문(2006)에서 본질주의에 비판적이었던 초기 불교의 모습이 중국에서 전개된 것을 역사적으로, 특히 열반관과 불성론에 주목하여 검토하면서 중국 불교의 본질주의적 변화를 탐색한다.

송남주(2016)는 중국불교의 발전과정에서 공(空)과 색(色)을 위한 방편이자 격의 용어였던 리(理)와 사(事)가 가지고 있던 실체론적, 일원론적 특징과 그로부터 퇴색된 다원주의적 면모를 지적한다. 그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이뤄졌던 청량국사 징관(澄觀, 738~839)이 사사무애(事事無碍)를 궁극적 경지로 둬으로써 리(理)를 중심에 둔 일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리사무애(理事無碍)를 초월했던 것에서, 리가 해체된 사(事)들의 공존이야말로 ‘다양한 중심이 가능한 다원주의적 세계’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원주의의 어떤 본질적인 면모가 불교의 교리 혹은 역사 안에 이미 내재해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런데 사실로서의 다원주의와 가치로서의 다원주의를 구분한다면, 이들은 사실로서의 다원주의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로서의 세계에 대한 다원주의적 입장이 불교 쪽에서 많이 등장했다면 유교 쪽에서의 대응은 그보다 사회 윤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비환(2000)은 자유민주주의의 대안적 정치공동체로 제안된 유가민주주의가 일시적 관심에 그치지 않으려면 다원주의적 추세에 저항하지 않고, 민주주의적 공존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를 위해 형이상학적 우주론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수신(修身)의 목표로서 충서가 최선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런 입장은 문병도(2003)에서도 발견되는데, 그는 다원주의의 지향이 시대적 추세로서 부정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유교에 대한 4가지 비판, 곧 권위주의·가족주의

·도덕적 이상주의·(정치학술계의) 무오류주의 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탈-형이상학적 태도의 요구는 정재현(2006), 서영이(2009), 이선열(2012), 황갑연(2013), 김성문(2014)에서도 대체로 이뤄지고 있다.

불교나 유교와 달리 상대적으로 도교는 한국에서 종교적 특색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제(齊)’와 ‘중(衆)’ 개념을 중심으로 장자 철학에 대한 다원주의적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팽봉(2003)이나 장자의 시비론을 검토하면서 장자에 대한 상대주의적 해석과 절대주의적 해석을 분석한 이경환(2017)의 논문은 다분히 사변적이다. 특기할 만 한 것은 양자 모두 장자의 철학 안에 현대 다원주의의 한계를 초극할 수 있는 혹은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 점이다.

3) 소결 - 지난 동양철학적 접근의 세 특징

이들을 아울러 볼 때, 다원주의에 대한 동양철학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이 특징들은 반드시 공통된 것은 아니지만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은 곧 (1) 동양철학에는 서구 다원주의적 요소 혹은 그 초극 가능성이 내재해 있었음, 혹은 (2) 서구 다원주의의 이론적 현실적 한계가 동양철학적 전통, 혹은 그 변용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음 등이다. 마지막으로 (3) 다원주의 시대에 통용되기 위한 동양철학의 변화 요구이다.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없는 것에서, 적어도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다원주의가 동양철학계에서 ‘피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조심스레 간주해도 될 것 같다. 다원주의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 지평에서, 다원주의적 요소 혹은 그 초극 가능성이 동양철학에 본래 내재해 있었음을 밝히려는 시도는 주제를 넘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불교에서는 ‘중관’과 ‘연기’ 등이 대표적인 키워드로 등장했다. 김용표(1995, 2010), 기요타카 키무라(2002), 윤영해(2002), 조운호(2003, 2006), 송남주(2016) 등이 그러하다. 백준흠(1996)과 김승철(1997)은 원불교 사상 안에, 장익(2002)은 진각종의 회당 사상 안에, 김진(2008)은 다석 사상 안에, 최문형(2009)은 홍익인간 사상 안에 그러한 면이 이미 내재해 있다고 주장한다. 장자에 대한 두 편의 논문(팽봉 2003, 이경환 2017)이 모두 그렇고, 유교에서는 서은숙(2008), 서영이(2009), 박창식(2018) 등의 논문이 그러한 전제를 두고 있다.

한편, 다원주의의 한계가 동양철학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는 한용운의 선사상을 제안한 김승철(1997), 장자의 이도관지를 주장한 팽봉(2003)과 이경환(2017), 문명 다원주의와 보편 문명론 간의 상충점의 회통이 주경지의 문화 철학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 전홍석(2009) 등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유교의 옛 덕목으로 다원주의의 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김비환(2000)은 유교민주주의를 검토하면서 이상적인 자유주의 정치질서에도 고유한 실천덕목이 필요하며, 그러한 실천덕목으로서 충서(忠恕)가 제안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선열(2012)은 서구 다원주의, 차이의 공존을 위한 핵심가치로 지목되는 관용에 예상될 수 있는 고립의 문제를 유가의 실천덕목인 서(恕)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서은숙(2008)은 개인적 윤리와 사회적 윤리를 포괄하는 글로벌 윤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글로벌 윤리로 효(孝)의 윤리를 내세운다.

유교민주주의는 다원주의와 함께 거론되는 키워드 중 하나이다. 김성문(2014)의 경우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다원주의적 도전에서 시작되었음에도 일원론적 체계모니를 누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또한 동아시아 사회의 경험적 실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유교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와 달리 동양철학이 다원주의 시대에도 통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에 걸맞은 조정 혹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정용환(2007)은 인의 여전한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그럼에도 다원주의 시대에 걸맞게 재해석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칫 인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무조건적 일치를 강요하는 강한 공동체주의로 흘러들 경우”에 발생할 “사랑의 폐단”을 걱정한다.

또한 유교 내부에서는 지나치게 보편주의적, 본질주의적, 형이상학적으로 진행되어 온 데에 대한 자성도 이뤄졌다. 권위주의·가족주의·도덕적 이상주의·(정치학술계의) 무오류주의 등에서 기인한 억압성을 배제해야만 다원주의 시대에 전통적 유교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문병도(2003)나 공자 도덕이론에 대해 다수의 연구가 초월성과 내재성에 집중해 온 것을 비판하며 천명과 심성의 일상성을 재조명한 서영이(2009)가 그러하다.

또한 정재현(2006)은 유교를 배타적으로 해석하는 부류와 화해적으로 해석하는 부류를 비교 검토하면서, 양자 모두 이념에만 너무 몰두했다고 비판한다. 그는 다원주의적 현시대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교의 진리가 형식적인 것이 되어야만 한다며 형이상학적 내용의 강조를 지양하고자 한다. 황갑연(2013)은 기존의 주종, 본말 관계였던 문예와 도의 관계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상호 수평적, 유기적 관계로 변경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현대의 시대정신을 다원주의로 규정하고 리기론과 유가철학의 등식관계를 해체하고자 한다.

3. 다원주의 윤리에 대한 동양철학적 접근

이 논문의 시작은 동양철학, 특히 유가철학이 현대 한국사회의 다원주의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이를 위해 앞선 연구를 검토한 바, 유교에서 다원주의의 문제를 다룬 연구의 방향은 크게 두 부류로 합치됨을 확인했다. 하나는 다원주의의 위험 혹은 그 한

계를 유교 내에서 해결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서 다원성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조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다원주의의 유교적 보완이든, 유교의 다원주의적 변화든 큰 가닥은 양자의 절충을 통한 대안의 모색이라 할 수 있다.

1) 다원주의의 유교적 보완

다원주의에 대한 가장 크고 일반적인 우려는, 특히 그것이 가치 체계와 연관될 때, 상대주의로 귀결되어 상대주의가 가진 문제를 고스란히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관용의 범위는 불관용을 포함하는가, 모든 보편을 부정하는 상대주의는 그 자체로 모순이 아닌가 등의 문제의 제기가 그러하다. 가치의 측면에서 극단적 상대주의는 고립된 예고이즘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비판도 마찬가지이다.¹¹⁾

유가철학에서의 비판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이선열(2012)을 보자. 그는 다원화된 사회의 필연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서구에서 강조되어 온 관용이 현실사회에서 완전히 수행되기 어려운 피상적 구호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회는 어중간한 다원주의와 어중간한 인권논리가 불안정한 타협을 이루며 동거하고 있지만, 이는 피치 못할 현실적 공존일 뿐이며 양자 간의 간극을 해소하는 명쾌한 논리적 합의는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¹²⁾

그런데 이러한 다원주의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지적, 특히 ‘명쾌한 논리적 합의’에 대한 지적이 석연치 못한 것은 다원주의의 본질이 바로 그러한 ‘모두 같은 생각으로의 귀결 혹은 강요’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라는

11) 정미라, 「문화다원주의와 인정윤리학」, 『범한철학』 36, 2005, 211-233쪽.

12) 이선열, 「타자 대우의 두 원칙: 관용과 서(恕)」, 『울곡사상연구』 24, 2012, 73-106쪽. 이선열의 예시와 비판은 김용환(1997)에 의지하고 있다. 필자는 2016년에 출간된 증보판을 참고했다. 김용환, 『관용과 다문화사회의 교육』, 철학과 현실사, 2016. 30-41쪽.

데 있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김선욱(2003)이 한국에서 다원주의 논의가 이론적으로 과열된 면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에 동의한다.¹³⁾ 그는 그 까닭을 한국에서 다원주의 담론이 서구에서 수입된 탓에 강단 철학적 성격을 띠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동의하지만 필자는 이것이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보다 다원주의가 발생하면서 겨누었던 각지의 보편주의적 사상이 여전히 우리의 사고를 구속하고 있고, 그래서 마치 이러한 ‘관용’ 역시 ‘(하나의) 보편적 형태와 범위’로 설명되어야만 한다고 믿는 데에도 일부 탓이 있다고 생각한다.¹⁴⁾

박구용(2003) 역시 철학적 담론에서 다원주의와 보편주의의 양립불가능에 대한 토론은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다는 점을 지목한다. 다원주의 안에는 어떠한 보편도 부정하려 하는 급진적 부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급진적 다원주의는 보편주의에 맞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켈렌을 묘사한 것처럼 “다원주의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극단적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¹⁵⁾

-
- 13) 김선욱(2003). 또한 이 논문에 인용된 김용표(1995), 김비환(2000), 정재현(2006), 정용환(2007), 전홍석(2009), 김성문(2014) 등도 유사한 의견을 내고 있다.
- 14) 필자는 이 부분에서 최장집(2008)과 유시민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최장집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까닭을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참여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치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강국·부국의 민족국가 발전의 범주 안에서 냉전 반공주의와 성장주의 경제이론, 권위주의적 산업화, 특히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민주주의적 정치가 지배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유시민은 2018년 4월 11일에 있었던 MBC 100분 토론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이라는 상대의 질문에 ‘민주주의는 최고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장삼이사(張三李四)가 모여서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원주의는 민주주의처럼 서로 다른 불안정한 이들이 얽히고설켜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그 차이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조차 이른바 합리성 아래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의 나무, 2008.
- 15) 박구용(2003; 2004). 두 편의 논문에서 박구용은 하버마스, 롤즈, 회페, 벨머, 아펠 등과 알베르트, 스티븐슨, 파이어아벤트, 로티, 리오타르, 켈렌 등을 구분한다. 그는 보편주의 지지자들의 독단성과 편협성은 물론 상대주의자들의 허무주의로

보편주의의 강하고 폐쇄적인 오남용이 차이로부터 차별을 정당화하는 전체주의로 귀결된다면, 겔렌과 같이 어떤 보편도 인정하지 않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다원주의는 절대적 상대주의처럼 허무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¹⁶⁾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 전체를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주의의 우려가 보편주의 전체를 폐기하도록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다원주의 내부에서도 이러한 극단적 상대주의와 허무주의로의 귀결을 피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박구용(2003, 2004)이나 노양진(2004) 등의 ‘태도로서의 다원주의’나 ‘계약된 다원주의’의 제안이 한 예이다. 박구용은 하버마스와 롤즈로부터, 노양진은 로티와 리오타르를 비판하면서 다원주의의 계약을 시도한다.¹⁷⁾ 정대현(2005) 역시 다원주의를 이론적 다원주의와 담론적 다원주의로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이론적 다원주의는, 쿤의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과 비슷하게, 여러 이론들에 의해 설명되는 여러 세계인 반면, 담론적 다원주의는 구체적 삶의 공간에서 공통적 공간을 공유하는 상이한 믿음들이다. 그러므로 상대주의로 귀결되기 쉬운 이론적 다원주의와 달리 공통적 체계 구성의 기반을 인정하는 담론적 다원주의는 ‘공유적 문맥’을 만들어 낼 수 있다.¹⁸⁾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극단적 상대주의, 허무주의적 에고이즘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다원주의의 이론을 비판하기보다, 그 빈 부분을 유가윤리의 실천적, 구체적 내용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 다시 이선열(2012)로 돌

의 귀결 양쪽 모두를 비판한다. 필자는 그의 “다원성을 견지하면서도 실천적 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 파편화되지 않는 다원주의와 통일을 강제하지 않는 절차적 보편주의가 서로 화해할 수” 있다는 믿음에 동의한다. 단, 필자는 한 국사회에서 특히 윤리적 측면에서 그러한 화해는 유가윤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16) 정미라(2005)

17) 박구용(2003, 2004); 노양진(2004).

18) 정대현, 『다원주의 시대와 대안적 가치: 한 인간론의 여성주의적 기초』,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아가 보자. 그는 현실세계에서 관용은 그 범위가 무차별적인 데에 도달할 수 없고, 자칫 서로에 대한 불간섭을 넘어 (도덕적) 무관심이 되어 버린 탓에 공동선을 넓힐 수 있는 공적 담론은 축소되고 개인의 결단에만 의지하게 되게끔 한다고 우려한다. 그에 따르면 이는 유가철학의 전통적 덕목으로 보완될 수 있는데, 바로 너와 나의 공통성에서 시작하는 서(恕)를 통한 보완이 그것이다. 서에 의한 관용의 대체가 아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서와 관용이 함께 “타자 대우의 두 원칙”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선열의 주장은 매우 중요한 지점을 짚고 있다. 다원주의의 유교적 보완은 기존 유교의 가치나 덕목을 독보적인 위치에 두려는 태도에서 탈피할 때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다원주의의 유교적 보완은 유교의 다원주의적 변화로부터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교 내 기존의 강경한, 폐쇄적, 배타적, 본질주의적, 보편주의적 기초를 누그러뜨리고 관계를 중심에 둔 실천윤리로 돌아올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원시 유학의 근본정신과도 일치한다.

2) 유교의 다원주의적 변화의 길

유교의 다원주의적 변화를 모색한 경우는 다양한데, 특히 문병도(2003), 정재현(2006), 정용환(2007)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러한 변화의 길이 유교가 기존에 고수해 온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형이상학적 본질주의와 보편주의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지목한 것이다.

이러한 지목은 정재현(2006)에게서 잘 정리되어 있다. 그는 객관적 다원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유교를 보편주의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비판하는 쪽과 유교는 이미 충분히 다원적이라고 해체주의적으로 옹호하는 쪽을 비교 검토한다. 이어 그는 김비환(2000)과 문병도(2003), 정재현을 인용하며 다원주의와 조화시키기 위해서 유교의 진리를 충서와 같은 형

식적인 것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¹⁹⁾ 그는 유교의 비타협성이 “방법론이 부재한 보편적 이념”에 있으며, “유교를 객관적 다원주의로 만들기 위해 … 보편적 형식적 원리를 사용하여 우리의 행위나 관습의 준칙들을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반 위에 놓기 위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가 말하는 보편적 형식적 원리란 무엇인가. 서(恕)와 정언명령을 비교한 그의 설명처럼, 그 구체적 내용이 비어있는 지침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용환(2007)이 시도한 인의 재해석은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인의 실현방식인 충서에 대한 주희의 해석인 ‘추기급인(推己及人)’을 예로 든다. 그는 충서가 추기급인이라면, 그 대상과 방식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타자의 차이를 자신 안에 동질화 하려는 자기본위적 선이해로부터 벗어나 타자의 다름을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대화적 이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 충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 형식적 지침이 된다. 곧 특정 상황에 처한 상대에게 가져야 하는 특정한 마음가짐, 태도, 혹은 상대에게 해야 하는 행위양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말하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을 본질적인 것 혹은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성기성물(成己成物)을 주장한 정대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안에는 내용이 없다.

사실 구체적 지침을 보편화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일종의 모순관계에 놓이기 때문이다. 마치 신의 편재(遍在)를 설명하는 무소부재(無所不在)가 곧 어디에도 있다고 할 수 없는 무소재(無所在)로

19) 그가 인용한 김비환과 문병도의 논문은 본고의 검토대상이기도 하다. 다만 그는 정대현의 ‘성기성물(成己成物)’에 관한 주장을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교수신문으로만 밝힌다. 성기성물에 대한 정대현의 글은 2006년 이화여대출판부에서 출간된 『다원주의 시대와 대안적 가치: 한 인간론의 여성주의적 기초』에 보완수록되어 있으며, 필자는 이 책을 참고했다.

귀결되는 것과 같다. 구체적 지침들은 특정한 시공간에 묶이게 마련이라 국지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때 그 곳에서는 보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곧 그 때 그 곳에서의 보편에 불과할 뿐이다.

문병도(2003)는 유교에 대한 현대의 비판이 그 억압성에 있다고 지목하며 그러한 억압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곧 수직적 권위주의, 남성·혈연 중심 집단주의, 도덕적 엄숙주의와 위선적 현실, 그리고 정치·학술계의 무오류주의가 그것이다. 그는 유교의 수직적 권위주의가 유교윤리가 가족 관계로부터 확장된 탓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종법봉건제에서 충과 직결된 효의 왜곡된 강조 탓임을 논증한다.

가부장주의에 대한 비판이 도처에서 동의되고 있는 지금 종법봉건제적 사고방식에 입각한 수직적 권위주의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종법봉건적 수직관계를 가족관계의 근간 혹은 지향으로 여기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더구나 1970년대부터 근대사를 더럽힌 군부독재시기에 더욱 강해진 충·효에 대한 왜곡된 강조가 시민들로 하여금 이른바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다른 시민들의 희생을 묵인·방조·조장하게 했는가. 그 때는 회사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의 억압을 당연스레, 때로는 자랑스레 받아들여지게 했지만, 이 역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그 때 그 곳에서의 보편’이었다는 것이 지금은 너무도 분명하다.

또한 문병도는 도덕적 엄숙주의와 위선적 현실의 동반 상황이 근본주의적 확신으로부터 나타났다고 말한다. 그는 양주와 목적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보이는 「등문공」 하 9장을 인용하며 맹자의 “어두운 측면”과 한 대 이후 유교의 국교화, 독존화가 유교의 배타성과 호전적 태도에 큰 영향을 줬다고 지목한다.

필자는 이에 더해 그 이론적 발전 양상 또한 유교의 배타성에 일부를 담당했다고 생각한다. 송명대를 거치며 맹자의 성선(性善)이 이기론(理氣論)을 통해 형이상학적으로 단단하게 재구축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15세

기 이후 조선에서 그 이론이 더욱 조밀하게 발전되는 과정이 바로 그러하다. 우리는 티끌이 가라앉혀 술잔 바닥의 무늬를 왜곡 없이 드러내라는 명령에서 이를 쉽게 읽을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을 순선(純善)의 이치와 합치시키면서 도덕과 윤리의 지향은 자연스레 본래의 순선을 회복 혹은 직출(直出)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다보니 도덕과 윤리의 당면과제는 본래 순선함을 ‘알고’ 또 ‘내는 것’이 되고, 이에 따라 곧 부도덕한, 비윤리적 행위와 동기를 구분해 내는 것이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성과 본성이 아닌 것,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 사이의 구분에 대한 토론은 점차 인간의 본성, 도덕적 선·불선은 구체적인 이런 저런 경우들로 내용을 채우게 된다. 사단칠정논쟁이나 인심도심논쟁이 바로 그러하다.

그런데 이 ‘이런 저런 경우들’은 그 때 그 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지적 사례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면서, 즉 그 내포가 충실해질수록 그 국지성은 더욱 두드러지고 분명해진다. 그리고 내포가 충실해질수록 그것과 다른 것들이 더욱 확연해지는데, 이제 본성이나 도덕적 선으로 간주되는 사례들이 아닌 것들은 억압되거나 척결해야 할 대상이 된다. 차이는 차별이 되고, 차이의 인정은 근본의 훼손으로 간주되면서 배타성은 점차 강화된다.

물론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서 형이상학은 논구되지 않을 수 없는 이론적 바탕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목표가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세계에 실제로 효용을 내는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형식적인 원칙과 오늘날의 상황에 적합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 원칙에 대한 논구와 함께 필자는 다원주의 시대 유가윤리가 다원성을 인정하고 소극적이거나 관용을 통용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결론

김성문(2014)은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 비록 유교가 옛날만큼 삶의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지배적 위치나 힘은 잃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적, 공적 가치로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다원주의와 동양철학의 관계는 여러 모로 구한말 동서도기논쟁을 떠올리게 한다.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다원주의는 거부할 수 없는 추세이지만 우리의 정신이나 행동양식에서 동양철학적 전통이 옷을 벗듯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영역에서, 보편주의적 합리보다 민주주의적 합의에 의존하는 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예컨대 정재현(2006)처럼, “이념의 보편성을 구현시킬 수 있는 좀 더 구체적 방법, 좀 더 합리적 절차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객관적 절차나 방법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편적 이념이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⁰⁾

다원주의 시대 동양의 전통에 이리이러한 면이 원래 있었다고 하는 주장도, 다원주의에 발맞춰 동양철학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면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는 철학에서 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생활, 문화의 면에서 다수의 연구가 함께,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철학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사회와 개인을 아우르면서 다원적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일 것이다. 즉 사실로서의 다원주의에 대한 탐구보다 가치론적 다원주의의 내실을 채워나가는 것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형식적 원칙과 구체적 지침의 병행을 주장한다. 형식적 원칙에만 골몰하는 것은 보편주의의 강화와는 또 다른 폐단을 낳는다.

20) 정재현(2006) 312~313쪽.

바로 현실에서의 적용불가능성이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침에만 매달리는 것은 자칫 상황주의적 혹은 주관주의적 윤리관이 갖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한다. 형식적 원칙이 필요한 까닭은 구체적 지침에 일관성을 부여하되 절대적 보편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한편으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한 것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유가윤리가 실천적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 한국사회가 유가윤리, 유가철학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또한 원시유학이 시작부터 목표했던 바이다.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는 ‘비어있는 원칙’과 ‘삼배관은 예이지만 물들이지 않은 실로 하는 것이 검소하니 나는 물들이지 않은 실로 만든 관을 쓰겠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즉시적인 지침이 함께 뻗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²¹⁾ 이러한 작업은 다원주의적 시대의 요구일 뿐 아니라, 사회와 개인의 삶의 지침을 제시하고자 했던 동양철학의 전통을 잇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21) 『論語』, 「顔淵」 2; 『論語』, 「子罕」 3.

참고문헌

『論語』

- 김용환, 『관용과 다문화사회의 교육』, 철학과 현실사, 2016. PP.30-41.
사회와 철학 연구회, 『한국 사회와 다원주의』, 이학사, 2003.
전남대 BK21플러스 사업단, 『다원주의의 철학적 관점: 동양과 서양을 횡단하다』,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정대현, 『다원주의 시대와 대안적 가치: 한 인간론의 여성주의적 기초』,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한국철학회, 『다원주의, 축복인가 재앙인가』, 철학과 현실사, 2003.
- 기요타카 키무라(木村清孝), 「불교와 다원주의」, 『불교학연구』 5, 2002, 21-39쪽.
- 김비환, 「유교민주주의에 있어서 유교, 자유주의 그리고 가치다원주의」, 『유교문화연구』 1, 2000, 89-114쪽.
- 김선욱, 「다원주의의 논점들과 정치-윤리적 관점」, 『사회와 철학』 6, 2003, 7-38쪽.
- 김성기, 「유교와 종교다원주의」, 『종교연구』 11, 1995, 103-128쪽.
- 김성문, 「HK 학술동향: 유교민주주의와 가치다원주의」, 『성균차이나브리프』 2(4), 2014, 138-148쪽.
- 김승철, 「만해 한용운의 선사상과 실천적 다원주의」,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21, 1997, 563-596쪽.
- 김승철, 「대순사상에 있어서 종교다원주의 패러다임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2014, 1-42쪽.
- 김용표, 「통일적 종교다원주의에서의 공동본질 문제에 대한 중관학적 해명」, 『불교학보』 32, 1995, 221-241쪽.

- 김용표,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정토신앙과 그리스도교」, 『동아시아불교문화』 4, 2009, 41-79쪽.
- 김진, 「다석(多夕)의 종교다원주의와 파니카의 우주신인론」, 『철학논총』 52, 2008, 105-132쪽.
- 노양진,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 로티와 리오타르」, 『범한철학』 34, 2004, 59-82쪽.
- 문병도, 「전통적 유교의 다원성 억압」, 『중국학보』 48, 2003, 559-578쪽.
- 박광수, 「한국 신종교의 근본주의(Fundamentalism)와 회통적 다원주의(Synthetic Pluralism)」, 『한국종교연구』 9, 2007, 1-30쪽.
- 박구용, 「윤리적 다원주의와 도덕적 보편주의 - 제약된 다원주의로서 정치적 자유주의」, 『사회와 철학』 8, 2004, 235-282쪽.
- 박창식,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의 다원주의적 도덕 철학」, 『윤리연구』 118(1), 2018, 107-136쪽.
- 백준흠, 「삼동윤리에 본 종교다원주의」, 『원불교학』 1, 1996, 235-257쪽.
- 송남주, 「事事無礙에 관한 철학적 고찰과 현대적 함의 징관의 四法界설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46, 2016, 71-94쪽.
- 서영이, 「공자 도덕이론의 실용주의적 읽기」, 『범한철학』 54, 2009, 81-113쪽.
- 서은숙, 「글로벌 시대 효학의 방향과 역할 - 글로벌 윤리로서의 효의 현대화」, 『윤리문화연구』 4, 231-271쪽.
- 윤영해, 「유교와 도교, 그리고 불교의 다원주의 가능성」, 『불교학연구』 5, 2002, 61-85쪽.
- 이경환, 「莊子 是非論의 다원주의적 고찰」, 『새한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 125-135쪽.
- 이명곤, 「프랑스 현대철학자들의 사상에 나타나는 톨레랑스 정신」, 『인간연구』 31, 2016, 83-112쪽.
- 이상형, 「다원주의의 성공과 실패: 자유주의적 공동체」, 『사회와 철학』 26, 2013, 89-120쪽.

- 이상화, 「세계화와 다원주의: 실천 태도로서의 다원성의 윤리」, 『다원주의, 축복인가 재앙인가』, 2002년 한국철학회 춘계학술대회.
- 이선열, 「타자 대우의 두 원칙: 관용과 서(恕)」, 『율곡사상연구』 24, 2012, 73-106쪽.
- 장익, 「회당사상과 종교 다원주의」, 『밀교학보』 4, 2002, 95-119쪽.
- 전홍석, 「주검지(朱謙之)문화 철학의 현대 문명 담론적 현재성-서구패권적 문명패러다임에 대한 동양의 대안 담론으로서의 가능성-」, 『동양철학연구』 58, 2009, 7-57쪽.
- 정용환,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仁 개념」, 『동양철학연구』 49, 2007, 459-485쪽.
- 정재현, 「유교는 화해적인가, 비타협적인가」, 『철학논총』 45, 2006, 303-318쪽.
- 조운호, 「불교 안에서의 다원주의」, 『불교학연구』 7, 2003, 303-326쪽.
- 조운호, 「동아시아 불교의 두 얼굴」, 『불교학연구』 13, 2006, 1-15쪽.
- 최문형, 「홍익인간(弘益人間) 사상의 다문화주의적 함의」, 『다문화와 평화』 3(1), 2009, 61-83쪽.
- 팽봉(서대원 역), 「일원一元과 다원多元 : 장자莊子の 다원론 사상과 그 의의」, 『사회와 철학』 6, 2003, 137-156쪽.
- 함재봉,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 유교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철학연구』 44, 1998, 43-67쪽.
- 황갑연, 「유가의 범도덕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儒家의 文藝觀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67, 2013, 499-524쪽.

Study on Eastern Philosophical approaches especially Confucianism about Pluralism

Yun Taiyang (Konkuk Univ.)

In this paper, I investigate existing approaches about Pluralism of Eastern Philosophy especially Confucian thought and suggest a way to supplement Pluralism with Eastern philosophy and pluralistic change in Confucian Ethics for applying this multidisciplinary Koran society. First of all, I review the approaches in two aspects, time-based and subject-related. According to review, there are two main agreements, one is that Pluralism can be complemented by Eastern philosophy, and secondly Confucian Ethics need to admit plural world and change pluralistically. Among other things, this would be a concrete proposal encompassing society and individuals on the attitudes and directions for people who live in pluralistic era and feel moral confuse.

Key words: Pluralism, Confucianism, Ethics, Formal Principle, Mobility

윤태양 e-mail: yuntaiyang.kr@gmail.com

투 고 일	2019년 10월 15일
심 사 일	2019년 11월 14일
게재확정	2019년 11월 14일